



보도자료

홍보실 (☎: 02-3464-2102~2116, FAX: 02-3464-3457)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님		
배포일	2020년 7월 1일 (수)	관련자료	데이터자료
참조			

기아차, 2020년 6월 20만 7,406대 판매

- 글로벌 시장에서 총 20만 7,406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
 ... 국내 시장에서 6만 5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41.5% 증가
 ... 해외 시장에서 14만 7,401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
-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 3만 792대로 최다 판매, 셀토스와 쏘렌토가 뒤이어

구분	2020년 6월	2019년 6월	전년동월 대비	2020년 5월	전월 대비	2020년 1-6월	2019년 1-6월	연간누계 대비
국내	60,005	42,405	41.5%	51,182	17.2%	278,287	242,870	14.6%
해외	147,401	193,442	-23.8%	113,711	29.6%	882,959	1,109,759	-20.4%
계	207,406	235,847	-12.1%	164,893	25.8%	1,161,246	1,352,629	-14.1%

기아차가 2020년 6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6만 5대, 해외 14만 7,401대 등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20만 7,406대를 판매했다. (도매 판매 기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41.5% 증가, 해외는 23.8% 감소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 792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 5,550대, 쏘렌토가 2만 2,426대로 뒤를 이었다.

■ 국내판매

기아차는 2020년 6월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41.5% 증가한 6만 5대를 판매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1만 1,596대)로 3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승용 모델은 K5 1만 145대, K7 5,652대, 모닝 3,260대 등 총 2만 5,766대가 판매됐다.

쏘렌토를 포함한 RV 모델은 셀토스 5,536대, 카니발 3,286대, 모하비 2,548대 등 총 2만 8,361대가 팔렸다.

상용 모델은 봉고III가 5,657대 팔리는 등 버스와 트럭을 합쳐 총 5,878대가 판매됐다.

■ 해외판매

기아차의 2020년 6월 해외 판매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한 14만 7,401대를 기록했다.

차종별 해외실적은 스포티지가 2만 8,337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로 이름을 올렸고 셀토스가 2만 14대, K3(포르테)가 1만 5,992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카니발과 스포티지 등 신차를 앞세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